

## 중노년기의 죽음불안태도

-내세관·죽음준비도를 중심으로-

유 희 옥\*(성신여자 대학교 강사)

김 태 현 (성신여자 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중노년기를 대상으로 중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죽음준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중년기 이후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세관, 죽음준비도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죽음준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죽음불안 척도, 내세관 척도, 죽음준비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75명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집된 자료에 대해서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 일원변량분석, 적률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관련변인의 전반적 실태는 죽음에 대한 수용, 임종에 관한 일, 제사 등 사후에 관한 일을 살펴보았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내세관, 죽음준비도, 죽음불안태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내세관, 죽음준비도에 따라 죽음불안태도를 살펴보았다.

넷째, 배경변인, 내세관, 죽음준비도가 죽음불안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생각 할수록,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수준 높을수록, 내세관, 그리고 죽음준비도에 따라 죽음불안태도에 영향력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회피는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죽음불안이 삶을 방해할 수 있다.

중노년기들은 연령증가와 더불어 건강상태에 따라 죽음불안태도에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죽음준비의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태도의 내세관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의 진입에 있어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죽음불안의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종교적 태도로서의 종교단체의 역할, 죽음준비 교육에 각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죽음준비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죽음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유한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중노년기의 죽음불안을 살펴보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고 남은 인생에 대한 삶의 존엄성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며 죽음의 긍정적 수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